

광주·전남 주택연금 월 수령액 전국 평균 밀돌아

집값 정체에 가입자 증가...광주 2346명·전남 1055명 월 지급금 광주 106만·전남 66만원...전국 평균 146만원 광주, 서울의 절반 수준·전남은 30% 불과...대안책 필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전남의 경우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입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568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는 1만4580명이 가입하면서 주택연금 공급 이후 역대 최대 가입 수준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2346명으로, 지난 한 해에만 314명이 가입하면서 한해 역대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현재까지 누적가입자가 105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

였다. 이는 지난 2020년 집값이 급격히 오른 이후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자, 주택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해당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이 하락 추세를 보이자 더 떨어지기 전 가입해야 월 수령액 역시 많아지는 구조다.

광주 각 자치구별로는 올 7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를 보면 북구가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 537명 ▲남구 449명 ▲광산구 330명 ▲동구 287명 순이었다.

전남은 각 시·군별로 상위 5곳과 하위 5곳을 나

눠보면 우선 순위는 ▲순천시 242명 ▲여수시 214명 ▲북포시 210명 ▲화순군 72명 ▲나주시 56명 등 순이었다.

반대로 하위는 ▲완도군 2명 ▲신안군 4명 ▲함평군 5명 ▲진도군 6명 ▲강진군 7명 등 순이었다.

주택연금 총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가입자가 6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 시세에 따라 지방과의 평균 연금 수령액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지역별 평균 월지급 금액은 서울이 20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4만6000원이었다.

반면 광주는 106만4000원으로 서울의 52.49% 수준인 절반에 그쳤다. 특히 전남은 66만5000원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32.8%밖에 되지 않는 등 3분의 1 규모에 불과했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전국 평

균인 146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령액을 받고 있었다.

노령화가 심각한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 자체가 저렴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 또한 낮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남 등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적정 주택연금 가입률은 낮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주택연금을 비롯한 노후대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국 상의 회장들 “부산 엑스포 유치 역량 집중”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4년만에 한 자리...“경제 도약하고 국격 높일 절호의 기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는 지난 12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2023 전국상의 회장회의'를 열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서울상의 부회장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스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허병중 LG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상의 회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상공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상의 회장단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민 기획조정본부장 겸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장은 '태도국 정상 초청 만찬'(5월), '172차 BIE 총회'(6월), '카리콤 유치교섭 방문'(8월) 등 올해 진행된 민간위원회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각 지역상의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엑스포 유치를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많다. 부산 엑스포 유치도 부산뿐 아니라 모든 지역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위



지난 12일 열린 '2023 전국상의 회장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역전 드라마라는 말이 있듯이 남은 기간 동안 경제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상의 회장회의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 협력방안 외에 대한상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지원센터, 신기업가정신(ERT) 프로젝트, 소통플랫폼 등에 대해 공유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8월 출범한 전국상의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의 주요사업과 지역상의와의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점차 다가오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미국, EU발 ESG 규범화 등 ESG 리스크에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국상의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등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ERT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상의 중심의 다양한 실천활동 확대 등 지역상의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적자난’ 한전 CP 누적잔액 5.5조 달해

3년만에 5배 상승

한국전력의 기업어음(CP) 누적잔액이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조 2500억원의 CP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조 3500억원 규모의 CP를 추가 발행했다.

연이율은 4.21%로 올해 발행한 CP에 대한 이자만 1000억원에 이른다.

회사채와 CP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데, 한전은 지난해 '한국전력 공사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회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했지만 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이 줄어 사채발행에도 어려움이 처했다.

이와 다르게 CP는 사채발행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채에 비해 자금용동이 용이하다.

그러나 CP마저 발행한도에 도달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발행 한도를 채웠으며, 올해는 한도 7조 5000억원이지만 현재 누적잔액이 5조 6000억 원인데다 만기가 도래하는 CP 규모가 5500억원에 달한다.

노용호 의원은 "지난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1조 원 규모로 관리되고 있던 한전 CP 누적잔액이 5배 이상 상승했다"며 "채권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업지원 연계 및 B2B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휘 동신대 창업지원본부장, 박화석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황상현 본부장, 김호중 조선대 창업지원단장. <산업단지공단 제공>

산업공 광주본부 ‘창업 및 B2B제조거래 지원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13일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동신대학교 창업지원본부와 '창업 및 B2B제조거래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지역 제조·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2B 제조거래 연계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4개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제조 전주기 연계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각자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제조공급기업 발굴, 거래매칭 지원, 제조인프라(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제조 컨설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5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MC, 산학연협(체)와 연계해 제조·창업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 과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상현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초부터 이어온 기관·대학 간 협력관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지원 우수성과를 도출하고,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전체의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품 제작, 제조 컨설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5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MC, 산학연협(체)와 연계해 제조·창업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 과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상현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초부터 이어온 기관·대학 간 협력관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지원 우수성과를 도출하고,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전체의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효성ITX,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익스트림VAS’ 소개

‘클릭월드투어 코리아’ 참가 AI·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효성의 IT 계열사인 효성ITX는 지난 1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클릭월드투어 코리아(QlikWorld Tour Korea) 2023'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릭월드투어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클릭(Qlik)사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로드쇼다.

이날 효성ITX는 자체 개발한 시각분석시스템인 '익스트림VAS'(xtrmVAS)를 소개했다.

익스트림VAS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제조 현장의 복잡한 공정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주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다.

또 코딩(coding) 기술이나 통계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현장 엔지니어도 몇번의 클릭만으로 제조 실적이나 품질 결과 등 다양한 공정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즉각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 실시간 품질 예측, 공정 이상진단, 불량원인인자 파악, 수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남경환 효성ITX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



클릭월드투어 참가자가 효성ITX 부스에서 익스트림VAS에 대한 소개자료를 보고 있다. <효성 제공>

해 효성ITX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역량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솔루션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DX(디지털 전환)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ITX는 효성 그룹의 IT 계열회사로 2017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시작해 섬유·화

학·중공업 등 다양한 국내의 제조 분야에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왔다.

효성ITX는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고객의 생산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4.70(-1.88)
↓ 코스닥	882.72(-15.32)
↓ 금리(국고채 3년)	3.853(-0.010)
↑ 환율(USD)	1330.00(+2.20)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정보진흥원 ‘광주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14~17일 DJ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3일 '2023 광주 스토리 페스티벌'이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3 광주 ACE Fair'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토리 AI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스토리콘, 전시부스, 피칭 및 네트워킹, 광주스토리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14일 개막식 작가 사인회와 지역 밴드 '핑송'의 개막공연으로 시작되는 오나미가 스토리콘의 메인 사회자로 참여한다. 이어 27대 1의 경쟁률 뚫고 선정된 광주스토리공모전 우수 수상작(총 6편)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스토리콘 기조강연 세션은 '드라마' 스토리텔링의 이신하 작가와 '한국 괴물 백과'의 저자 박

재식 작가의 강연과 대담이 이어진다.

전문강연 세션에서는 윤권수 MBC 총괄제작 PD와 AI 기반 스토리 창작 플랫폼 이크립의 김선업 대표가 스토리와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전시부스는 광주스토리작가들의 작품 속 인물을 실사로 만날 수 있는 포토존과 작가들의 작품 소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행사 참가 방법은 광주스토리페스티벌 홈페이지(gstoryfestival.kr)를 통해 사전 등록 후 현장에서 명찰을 출력 후 입장하면 된다.

이경주 GICOM 원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광주스토리페스티벌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작가를 지원하며 동시에 시민에게 불거리와 스토리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지역의 스토리 산업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